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하느님 창조 의 선교사. 농민

농촌, 농민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까? 푸르른 들녘과 풍성한 열매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농민의 땀방울, 갈라진 손바닥, 허탈한 미소가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떠올리면 미소 짓게 하는 모습도, 가슴 아픈 모습도 모두 다 오늘날 농촌과 농민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글이나 각종 소식을 통하여 알게 되는 농촌의 현실은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과 산업화,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농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비율도 최저로 떨어졌으며 대부분 노령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의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점점 농사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와 교회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농민들 스스로가 하느님 창조 사업의 일꾼이라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너무나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농민주일을 맞아 자연을 단순한 인간들의 삶을 위한 환경조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창조주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이 담긴 거룩한 창조물로 새롭게 인식하고, 무엇보다 거룩한 창조물을 돌보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지속적인 하느님 창조사

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에 격려와 기도의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만 아니라 지구 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은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고, ‘보시니 좋다!’고 말씀하셨던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수고와 노력입니다. 바로 농민들은 하느님 창조의 선교사로서 파견되어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가운데,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창조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민의 활동은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복음 선포를 위해 파견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한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 주었던 제자들의 임무 수행처럼, 오늘날 농민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무절제하게 자연을 남용하는 그릇된 풍조를 쫓아내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든 땅, 병든 먹거리의 회복을 위해 화학 농산물이나 농약에 절인 수입 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의 경작과 보급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창조의 선교사인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 눈앞의 자연환경,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하느님 창조의 선교사인 동시에 예언자적 소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나무를 가꾸던 아모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불리움 받은 것처럼,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발전과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생명을 경시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의 징표를 읽고, 구체적인 삶으로서 창조질서를 지켜나가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는 이들 역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서 하느님 창조에 동참하고, 예언자적 소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농민들이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창조질서 보존을 위하여 자연을 돌보듯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 역시 주변 환경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잘 돌봄으로써 하느님의 창조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할 우리의 소명에 충실해야 하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무관심의 문화가 아니라 돌봄의 문화가 온 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에 파견된 이유입니다.

상주 가르멜 여자수도원 김재형 베드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한 농민 주일입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민들에게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입당성가 : 461번 ‘나는 주님 포도밭’

본기도

†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아모스 예언서 7장 12절-15절

안 내 : 주님께서서는 양 떼를 몰고 가는 아모스를 붙잡으시어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묵 상 :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화답송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2독서 : 에페소서 1장 3절-14절

안 내 :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6장 7절-13절

강 론 : ‘하느님 창조와 선교사. 농민’(1-2쪽)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 161번 ‘성체를 찬송하세’

영성체 후 묵상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생각이나 느낌조차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침묵>

우리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인간적인 노력들만 기울인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침묵>

앞으로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유지하고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변화된 상황에 주님의 말씀을 새로이 적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89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교구내 사제 성폭력 피해 접수처 지정

- 전화번호 : 054-856-3117
- 전자우편 : adcd3117@naver.com
- 담당 : 사무처장 신부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예언서)

- 함창 - 7월 16일
함창 본당 소성당 (일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40,000원(교재비 포함)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초등부 성소자 캠프

- 일시 : 8월 7일(화) 14:00-8일(수) 14:00
- 장소 : 우곡성지
- 장소 : 성소에 관심있는 초등부 남학생 (3-6학년)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편한복장, 운동화, 샌들, 갈아입을 옷 등
- 참가비 : 1인 30,000원
- 신청 : 7월 31일(화)까지 사목국으로

■ 꾸르실료 월레미사

- 일시 : 7월 16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사별성당 새성전 봉헌미사

- 일시 : 7월 25일(수) 17:00
- 주소 : 상주시 사별면 덕담1길 90
- 신부님 준비물 : 장백의와 백색 영대

■ 여성 제40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8월9일(목) 14시-8월12일 17시 [3박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접수마감 : 7월 13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후 3년 이상, 견진성사 받은 분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제86차 안동ME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8월 12일까지
- 신청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부부, 비신자, 사제, 수도자, 타종교인 가능
- 문의 및 신청 김좌중(M.콜베) 010-6580-8408
천연화(베로니카) 010-6500-8408

■ 제17회 초록빛 교실(가족 캠프)

- 일시 : 8월 4일(토)14:00~5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단체
- 참가비 : 1인 2만원(3식 및 간식 포함)
- 신청 : 교구 사목국(054-858-3114~5) 선착순 100명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썩 미숫가루 가격 : 1kg 15,000원 (청정지역 썩과 유기농 곡물 미숫가루)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꽃동네 젊은이 성령 피정

- 일시 : 8월3일(금)13:00 ~ 5일(주일) 16:00
-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치유미사 : 꽃동네 오웅진 사도요한 신부
- 대상 :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젊은이
- 회비 : 30,000원
- 문의 : 010-5490-5345

■ 제1회 청년 순교자 축제 TYM

- 일시 : 8월 31일(금) 17:00부터 9월 2일(주일) 14:00까지
- 장소 : 나바위-개감장터
- 접수 : 7월 1일~7월 31일
- 회비 : 5만원
- 신청 및 문의 : 010-4677-4702
- 복자수도회 www.brotherhood.or.kr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8장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식별

296.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에서는 나약함 또는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저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온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역사 전체를 관통해 온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배척과 재통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 시대부터 교회의 길은 언제나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와 통합의 길입니다. …… 교회의 길은 어느 누구도 영원히 단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모든 이에게 과분하고 무조건적이며 무상(無償)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을 피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당하는 고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97. 모든 이를 통합하고 저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과분하고 무조건적이며 무상인”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평생 단죄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복음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한 뒤 재혼한 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객관적인 죄를 마치 그리스도교 이상에 속하는 것처럼 제시하거나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관철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설교할 수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와 회개하라는 복음의 요청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사회봉사와 기도 모임과 같은 것을 통하여, 또는 본당 신부의 식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결단으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비정상적’ 상황들을 다루는 방법에 관하여 시노드 교부들은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저는 이를 지지합니다. “사회 혼을 한 이들, 이혼한 뒤 재

혼한 이들, 또는 동거만 계속하는 이들에 대한 사목적 접근에 관하여, 교회는 이들의 삶 속에 하느님의 은총의 교육법을 보여 주고 그들이 하느님 계획을 완수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298. 예를 들어,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이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개인적 사목적 식별의 여지없이 그러한 상황을 단정해 버리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고해지는 두 번째 결합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자녀들을 얻게 되고, 공인된 신의와 관대한 자기 증여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며, 자신의 비정상적 상황과 새로운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른다는 양심의 가책 없이는 이 상황을 돌이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자녀의 양육과 같은 중대한 이유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야 하는 의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혼인을 유지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당하게 버림을 받거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재혼한 사람들도 있고, 이미 치유할 수 없게 파괴된 처음 혼인은 결코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양심상의 확신을 때때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에는,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새로운 결합을 이루어 자녀들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고통과 혼란이 따르게 되는 경우, 곧 가정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가정을 위해서 복음이 제시하는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시노드 교부들은, 목자의 식별이 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잘 식별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99. 저는 많은 시노드 교부들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혼하고 사회적으로 재혼한 세례 받은 이들은 추문의 모든 경우를 피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온전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통합의 논리는 그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의 핵심입니다. 사목적 배려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쁘고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우리의 형제자매이며 성령께서는 그들 마음에 모든 이의 선을 위한 선물과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들의 참여는 다양한 교회 봉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례, 사목, 교육, 제도 안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배척의 다양한 형태들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교회에 파문당했다고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활발한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언제나 그들을 환대하는 어머니와 같다고 느끼고 교회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며 삶과 복음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들에게 힘을 준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은 그들의 자녀를 돌보고 그리스도적으로 양육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세월은 말이 없고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엇그저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들렀더니 사진을 한 장 가져오라고 하였다.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사진관을 찾았다. 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니 친절하신 사진관 아저씨께서 거울 앞으로 안내를 해주시며 “다듬고 나오세요.”라고 하신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용실 갈 여가를 찾지 못하여 어중간하게 자란 긴 머리에 똑딱 핀 하나 어설피게 머리에 꽂고, 화장도 하는 등 마는 등 하여 나왔기에 얼굴엔 기미가 거무스름하게 올라와 있었고, 립스틱도 제대로 바르지 않은 입술은 마치 환자 같았다. 예쁜 사진이 나온다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막상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걸 느꼈다. 괜한 지난 삶의 흔적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울해지려고 하였다. 만만한 머리빗만 들고 이리저리 빗질하다가 카메라 앞에 앉았다.

스포츠라이트가 몇 번 터지는 동안에 표정을 달리 해보자고 미소를 지어보려 해도 잘 되지 않았다. 잠시 후 사진 인화를 하시는 아저씨의 손놀림이 바쁘다. 컴퓨터 안에서 내 얼굴을 성형을 하기 시작하셨다. 기미가 사라지고, 처진 눈을 살짝 올리고, 입술도 자를 재어가며 바로 고쳤다. 목선에 작은 점까지 빼주시고 눈가에 주름은 물론 콧등을 곧게 세우고, 마지막엔 어중간했던 머리손질까지 해주시니 단돈 만원에 멀쩡하게 성형을 마친 사진은 다른 사람이 되어 나왔다.

세월은 말없이 흐르고, 그 흐름 속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변화되기 마련이지만, 사진을 찍어보니 그 세월을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도 새삼 느꼈다.

내가 지내온 세월의 흔적을 사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주님 앞에서는 가려지는 것 하나 없다는 것을 사진을 찍으면서 알게 되었다.

그렇다. 주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똑 같이 세월을 산다.

우리들은 자연의 일부분으로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다가 순리대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 내 삶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또 대자연과 어우러진 그 안에서 우리는 늘 하느님을 만난다.

새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영글어 가면서 우리는 함께 세월을 산다. 그렇지만, 참으로 신비로움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우리는 그 신비를 잊고 살 때가 많다.

병원 침상에 누워계시는 친정어머님을 뵈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신비를 느낀다.

요양원에서 눈과 입을 닫고 식사 거부로 병원에 입원을 수차례 하신 어머니의 병명은 없었다. 식사를 하지 못하시니 영양제와 수액을 달고 이삼일 지나면 깨어나서 눈을 뜨고 입을 여시어 말씀도 하시고 소량의 음식을 드시기도 하신다. 그러시기를 수차례, 연세가 구십 육 세에 깜빡깜빡하시는 어머니의 기억력을 보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자식들을 알아보시지 못할 때는 안타깝지만 당신께서 살아오신 세월을 기억 속에 모두 담고 계신다면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주검 앞에 가까이 있을 때만큼은 누구든지 아름다웠던 추억들도 세월 속에 묻혀있는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웠던 부분들도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머니를 뵈면서 하게 된다. 어머니는 지금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시고 어머니 앞에 보이는 것들과 잠깐 대화하시고 기억하신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신비는 곧 드러나게 되는 것 같다. 흠에서, 곧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실 앞에서, 편안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나는 느낀다. 세월은 말이 없고, 그 세월을 다 알고 계신 주님도 말이 없다고....!!